유통업계 동행세일에 웃음꽃 피웠다

백화점 매출 최대 25%↑…마트 가전·과일 등 10%대 증가
면세명품점 연 롯데아울렛 수완점 40.7% 매출 증가 기록
금남지하상가 첫날 '페이백용' 온누리상품권 2시간만에 소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부진을 겪은 지역 유통가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진행한 첫 주말 '두 자릿수' 성장률을 올리며 모처럼 웃었다.

범정부 차원 홍보와 각종 판촉전이 소비로 이어졌지만, 업계는 주말 사이 지역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동행세일 효과' 지속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2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동행세일이 시작한 26일부터 28일까지 이 점포 매출은 1년 전 보다 24.6% 올랐다.

이 점포의 매출 증가는 가전·가구(35.3%), 해외명품(20.9%)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레저스포츠(10.9%), 여성의류(2.3%), 남성의류(6.6%), 아동(12.5%), 잡화(4.2%)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재고 면세품 판매전을 벌인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무려 40.7%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완점은 이 행사가 열리는 닷새 동안 10억원 상당 해외명품 물량의 90% 이상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과 월드컵점은 동행세일 기간에 맞춰 최고 80% 할인율을 내걸고 협력업체 이월상품 소진행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도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9% 올랐다.

상품군별로 매출 증가율을 보면 명품이 20%로 가장 높았고 여성(8%), 남성(6%), 스포츠(6%)부문 등도 회복세를 보였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점포 매출 증가는 명품이 주도했다고 보면 된다"며 "따로 할인 행사를 벌이지는 않았지만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시·도로 가지 못하는 고객들의 소비가 지역 백화점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역 대형마트들도 여름 가전과 출하기를 맞은 농수산물 위주로 호조를 보였다.

세일 기간을 하루 앞당긴 광주지역 4개 이마트는 지난 25~27일 제철 과일과 수산물 매출이 크게 올랐다.

여름 대표 과일인 복숭아와 참외 매출은 1년 전 보다 각각 66.3%, 52.3% 증가했다.

이마트가 동행세일에 맞춰 할인 가격에 선보인 생오징어(5마리 7900원)는 매출 증가율이 '세 자릿수'인 144.7%를 기록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음료 매출은 11.4% 증가했고 맥주(18.3%), 와인(42.7%) 등 주류도 17.7% 상승세를 보였다.

에어컨과 선풍기 매출은 각각 58.7%, 38.6% 증가했다. 이마트는 동행세일 기간 으뜸효율 가전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했다.

광주지역 4개 롯데마트도 동행세일을 시작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매출이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10.2% 증가했다.

광주 22개·전남 16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동행세일에 동참하고 있다.

금남지하상가 세일 첫날인 26일, 150만원 상당 '페이백용' 온누리상품권이 행사 시작 2시간 만에 전량 소진되기도 했다.

동행세일 참여 전통시장·상점가를 찾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동행세일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증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행사장의 경우 추가 배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다시 보이면서 동행세일을 중도 포기하려는 전통시장이 더러 생겨나고 있어 향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하나로 오는 7월2일까지 본관 1층 광장에서 '전남도 6차 산업 및 곡성군 직거래 상생장터'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3.48 (-41.17)	↑ 금리 (국고채 3년) 0.842 (+0.031)
↓ 코스닥 734.69 (-15.89)	↓ 환율 (USD) 1198.60 (-2.00)

지방 5대 은행도 코로나 2차 대출 시작

지역 16개 신보 10조 규모 추경안 조속 통과 촉구

광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도 29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작했다. 해당 은행은 광주은행 포함 부산·경남·전북·제주은행이다.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따르면 이들 5개 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다른 시중은행과 똑같이 운용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보가 대출에 95% 보증을 제공하며 심사 업무는 은행이 수행한다.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기존에 채무를 연체 중인 자, 1차 소상공인 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 수혜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한편 광주와 전남 등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최근 호소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연을 촉구했다.

16개 지역신보는 올해 2~6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총 15조9216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보증규모 14조원보다 많다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지역신보는 하반기 10조2000억원 규모 추가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을 3차 추경안에 반영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 여전히 '깜깜'

7월 건강도지수 2.8P 하락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오는 7월 경기도 어둡게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193개를 대상으로 7월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77.7) 대비 2.8포인트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3.6)에 비해 8.7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히 불안해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77.5)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76.2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전월(78.3) 대비 5.8포인트 하락한 72.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66.9)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65.3, 비제조업은 3.7포인트 하락한 82.4로 나타났다.

내수판매전망(77.2→73.3)과 경상이익전망(72.5→68.9)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했고, 자금사정전망(65.4→68.1)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수출전망(35.3→44.4)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반등했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30.6포인트나 하락한 수준을 보였다.

또 지난 5월 광주전남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1.2%포인트 하락한 64.3%로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

쌀값 지지·수급 안정 다짐

농협 전남본부, RPC 협의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9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장장대표협의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26명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쌀값 지지·수급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다짐했다.

협의회 후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협의회 사업 결산보고·2020년 사업계획 안건을 승인했다.

한편 전국 평균 쌀값(정곡·20㎏)은 올해 1월 들어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완만하게 오르는 추세다.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4만7706원으로, 전달보다 257원 올랐고 1년 전(4만7639원) 보다 67원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지역인재 양성'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 네 번째)은 29일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운데)에서 협약식을 열고 앞으로 3년 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1억5000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제공〉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광주·전남 6곳 선정

조달청, 2분기 52개사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지패스)' 2분기 선정에 광주·전남기업 6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올해 2분기에 선정된 '지패스' 기업 52개사 중 광주 ㈜하나룩스·㈜애니온, 전남 ㈜픽슨·㈜온돌라이프·㈜동수건설·㈜대명 등 6개사가 포함됐다고 29일 밝혔다.

'지패스'가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총 745개사 가운데 지역 기업은 49개사(광주 12개·전남 37개)가 포함됐다. 전체의 6.6% 수준이다.

각각 LED 조명기구와 복합판넬이 대표 품목인 하나룩스와 대명은 베트남을 수출 거점국가로 꼽았다. 픽슨(파형강관)은 호주를 희망국가로 정했고, 온돌라이프(난방제품)-러시아, 동수건설(창호)-중국, 애니온(방송장비)-미국 등이 지정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